▪ 교회소식 ▪

1. 임원회 : 오늘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분기 임원회가 열립니다.
2. 창조절 : 다음 주는 창조절입니다. 창조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기억하고, 창조질서 회복에 힘쓰는 절기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3. 가을나들이 신청 : 청파 가을 나들이가 10월14일 김유정역에서 있습니다.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4. 교회홈페이지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서버에 이상이 생겨 홈페이지를 복구 중에 있습니다.
5. 신앙실천 : 이재민을 위해 기도합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미정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재흥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재흥	김재흥	최형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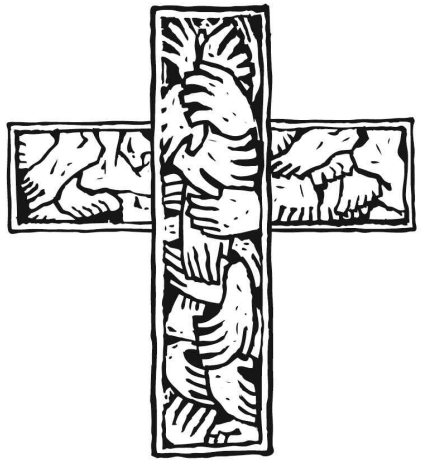
8월				
	1부 영접위원	박명제	헌금위원	서미경
	2부 영접위원	이한림 정원석 박석희 고숙이 김현영 조항미		
	2부 헌금위원	박홍재 박미영		

오늘 식당 봉사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이상미 송은진 최희정 최영민 박석희		
다음주식당봉사	유경순 하미림 이유진 임설희 이경아 박구병 송형운 정재기		
오늘설거지봉사	4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2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2남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박명제

2018-34 8월 26일

110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14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이범석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38. 예수 우리 왕이여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6. 구세주를 아는 이들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안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의 오르막길에서 한숨을 내쉬는 우리에게 함께할 신앙의 동료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어깨를 따스한 손길로 토닥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며 끝끝내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마음껏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이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화해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시130:7,8 ····· 인도자

▲ 교 독 문 ····· 15. 시편 27편 ····· 다 함께

▲ 영 광 송 ·····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하현철 장로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347. 허락하신 새 땅에 ····· 다 함께

▲ 성경봉독 ····· 수 4:1-7, 19-24 ····· I. 인도자 II. 오형일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I. 믿음 위에 굳게 서라 ····· 마중물 찬양대
II. 주님의 손 청파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새롬 권혁순 박혜경 김기석 김희우 김명하 오형일 김명희 김용진 박효선 김재환 김진선 김정기 김정훈 이진영 김준호 곽혜자 김지윤 정영우 김지해 김지현 김진옥 김철수 유영남 김현동 오유경 노진래 최형경 박기원 이미영 박상욱 임서영 박준민 최광희 박준희 이기분 서동우 성지현 송형운 하미림 오자영 우순덕 유금주 윤미경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이광석 이경희 이미휘 이부곤 이수자 이우엘 이주경 안상숙 이주영 오재영 이지원 임고운 오재형 임승동 백혜숙 장승희 장원호 박성희 장춘란 전찬익 이은자 정연경 정영례 정진호 양순임 정민경 정현숙 조수아 주은경 최미자 최소라 고인성 최옥자 최욱진 정수현 최윤화 최재욱 이수정 최형균 강경화 한완식 임정자 한지원 허명선 허호범 박성실 홍순구 안홍숙

감사헌금

강혜린 권영호 이도선 권정이 김경미 김명희 김반야 김성수 김은영 김진혁 김창숙 김은종 김충실 조아라 김태정 박재영 이현정 박지영 박진주 박홍재 오민용 윤선호 임선아 이고임 이상도 이자애 임설희 임채진 이영희 장현희 주은경 채일석 최미선 최혜정

녹색꿈헌금

김영희 김정화 박준민 최광희 이고임 정효진 최옥자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마음으로 읽는 글** ■

태풍주의보

김미혜

암만 바람 불어도
끄떡없어야 한다
흔들고 흔들어도
짱짱하게 맞서야 한다

네가 쿵, 떨어지면
할머니 가슴 무너진다

사과야, 힘쎄지?

끝끝내
끝끝내
매달려 있어야 한다

말 씀	**강을 건너는 사람들**		신진식 목사
거둠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384.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신령한 숨결과 능한 손으로 세심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주님의 손을 맞잡고 담대하게 강을 건너가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혼돈의 물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마다 구원의 음성을 들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망설이며 건너가 보려 하지 않았던 요단강 너머를 향해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신진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쉼	낮집회 / 설교 : 이범석 목사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믿음으로 읽는 글 ■

주님의 가난

교회는 문을 닫아걸고 소극적이 될 때 나빠집니다. 이른바 '아픈 교회'가 되는 셈이죠. 여러분, 문 닫힌 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년쯤 문 닫힌 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년쯤 문 닫힌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 쾌쾌한 냄새…. 아주 좋지 않지요. 소극적인 교회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아픈 교회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 자신을 떠나 실제 외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어디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만약 누군가 그 자신을 떠나 밖으로 나가면, 여러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가령 집을 떠나 체육관으로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천 번이라도 좋아요. 교회가 피해를 입더라도, 문을 닫고 소극적으로 타락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세요. 나가십시오!

여러분, 묵시록의 이야기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장면입니다.(계3:20)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 문을 두드리시는가?'하고 말이지요. 언제냐고요?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그러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만난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형제애의 문화', '만남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있다면 어디든 가야만 하죠.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나눠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도 빈곤함을 발견합니다. … 우리의 것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난이란 단순히 사회적이거나 철학적, 문학적 범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것입니다. 하느님이, 하느님의 아들이 아래로 내려오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가난하게 되신 것이지요.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을 걸으시려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난'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강생이 바로 가난인 것이지요. 하느님 아들의 강생으로 우리에게 선사된 가난 말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인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가난한 이들)에 다가가야만 '이것이 정말 가난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가난말입니다.

'미드라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아름다운 탑을 짓습니다. 그는 이 아름다운 탑을 쌓기 위해서 벽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곧 진흙과 짚을 가져와서, 모두 반죽한 다음 불로 구워서 벽돌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탑을 쌓아나갑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은 탑을 쌓는 일에 있어 귀한 보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벽돌이 장인의 실수로 땅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비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벽돌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장인이 벽돌이 떨어졌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오늘날 벌어집니다. 투자한 것이 날아가거나 은행의 폭락이 생기면, "이것은 참사야! 어떻게 하지??"라며 갖은 호들갑을 떨면서, 많은 이들이 어렵게 지내고 못 먹고 못 사는데도 "아무 일 없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위기이자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정신 상태에 대해 반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가톨릭출판사) 중